

2016년 첫 번째 호(통권 14호)

별마당 010-1171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성촌의집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 있는 삶을 돋고 있습니다.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2016년 우리의

다짐이라 전해라~♪

건강지원팀

2016년 건강지원팀의 계획은 ‘감사’, ‘소통’, ‘실천’,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힘든 부분이기도 했던 과정들을 2016년에는 새롭게 다짐하면서 모든 성촌의집 가족들, 직원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행정지원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직원과 이용가족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이 어떤 일을 하며 시설이 운영되기 위해 행정 및 유관기관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직원들과 이용가족들과 소통을 통해 친숙해지는 행정지원팀이 되겠습니다.



통합서비스팀

2016년 한해의 계획을 세우면서..올해도 많은 도전이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촌의집 사회복지사로 빛을 넣 수 있도록 이용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발 더 다가가는 사회복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용자

성촌의집에서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 직원들,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두 배가 되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런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해피엔딩

인생의 해피엔딩을 위한 별마을의 특별한 준비

별마을에서는 웰빙라이브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도문득 이런 의문을 가셨습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만큼 행복하게 죽을 권리도 있는 것은 아닌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웰다잉’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노년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엔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별마을에서 장례문화체험, 임종체험을 해보는 것으로 웰다잉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문화 체험을 해보니 어떠셨어요?”

“무서웠어요.”, “답답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알려주게 되어 죽음보다는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하는 웰다잉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추억이 담겨있는 앨범이 놓였고 영상자서전 활영을 준비하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카메라 안에 순차적으로 담기며 이야기보따리가 풀렸습니다.

“영상으로 자서전을 만들어보니 어떠셨어요?”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더불고 얘기하여 좋았고 추억에 잠길 수 있어서 인터뷰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인터뷰가 끝났을 무렵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공감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망부터 큰 소망까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죽기전에 한번쯤은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볼까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그걸로 글짓기를 해볼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를거예요.”

우리는 하나씩 도전해보며 성취감도 느끼고 즐겁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준비를 합니다. 노년기의 삶은 제 2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별마을 사람들도 제 2의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며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요?

[김기철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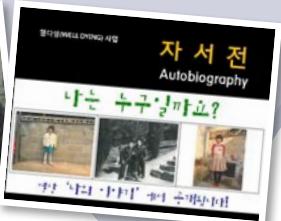
“장례체험”



버킷리스트 작성



자서전 ‘영상 제작 및 상공경’



응답하라

2015.12

즐거웠던 2015년 12월 성촌의집 송년행사

일시 • 2015.12.08.(화) 17:00~20:00

장소 • 강당(본관 3층), 식당(남자생활관 1층)

축하공연



성촌걸스(트위스트)



7080노라조(써니)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감사의 편지



단체사진



송년행사의 주인공으로, 후원자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자원봉사자 · 후원자이날 (함께한 thanks sungchon story)

일시 • 2015.12.12.(토), 11:00~14:00

장소 • 강당(본관 3층), 식당(남자생활관 1층)

공연



송윤옥 오내친구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의
가야금연주



인천고 관현악부
졸업생 4명의 관현악
연주



남동우 후원회장님
축사

포상



왼쪽부터

후원자상 : 건강길약국 김덕진 약국장, 동남스포피아 고종원 대표

우수자원봉사자상 : 부평지기

자원봉사자상 : 상정고우리들봉사단, 사랑나눔봉사단

우수후원자상 : 아프로파이낸셜 구월지점(바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

모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날’ 이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

‘장애인의 날’ 이 제정된 과정

- ▶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 진행
- ▶ 1982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이관 개최
- ▶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시

여기서
잠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표현

‘장애인’, ‘장애우’, 그리고 기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인도영화 ‘블랙’에서 장애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감동적인 명대사가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장애를 가진 미셸을 헌신적으로 교육하였던 사하이 선생님의 대사입니다.

“저 아이(미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단어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과 가능의 차이는 믿음과 사랑이 뒷받침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닐까요?

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올해로 36번 째 진행되지만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개선되었고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편견과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다 큰 장애는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 차별의 눈으로 대하는 마음과 생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4월20일은 장애인을 위한 날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의 장애를 허무는 날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애인의 날
5행시



장 차 나비가 될
애 별레는
인 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 지를 가지고
날 아가는 꿈을 꾼다



별마을 우체통

직업능력개발훈련(한지공예)를 마치며

한지공예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강사님이 친절하고 잘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한지공예도 하면서 내가 만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완전 좋아요.

[김미경 이용자]

예전에는 심심한 날이 많았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동료들이 작품을 만들 때 도와줘서 고맙고 좋았어요. 그리고 한지공예가 끝난다고 해서 슬펐는데 판매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김미영 이용자]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잘하게 되어서 좋아요. 마음의 안정이 되고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어서 기뻐요. 그리고 일을 하기 전까지 준비를 많이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할거예요.

[김현주 이용자]

한지를 가지고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어 신기했고 만드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혼자 만들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동료들이나 강사님이 도와주어서 어려운 것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원용성 이용자]

한지공예참여소감에 대해 물으니 웃으며 좋다고 합니다. 무엇이 좋았는지 물어보니 작품을 만드는 동작을 하며 “좋아요”라고 합니다. 전통한지공예를 계속 하고 싶은지 물어보니 “네”라고 하며, 웃으십니다.

[장순임 이용자 / 인터뷰]



직업능력개발훈련(한지공예)를 시작하며

한지공예 다니게 되니 기분이 어때요? 웃으면서 “좋아”라고 하십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먹어도 괜찮아요? 또 웃으면서 “좋아”라고 하시는 모습이 당장이라도 배우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환 이용자 / 인터뷰]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첫걸음을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박성호 이용자]

종이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넵킨아트를 배웠을 때도 좋았는데 이번에 한지공예를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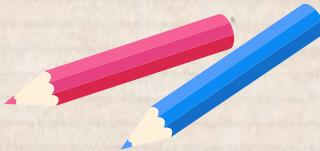
[윤진규 이용자]



축하해주세요!!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최한 ‘자립생활지원모델 적용을 위한 컨설팅 및 매뉴얼 보급사업’에 성촌의집이 참여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립생활지원모델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전환을 유도하여 장애당사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별마을 그림일기



날씨가 따뜻해져 다가오는 봄을 준비할 겸 옷을 사기 위해 외출했다. 오늘은 최근 새로 생긴 옷가게를 가보았다. 진열되어 있는 옷 중에 마음에 쏙 드는 티셔츠가 있어 거울을 보고 입어보았다. 매장 점원이 추천해주는 옷도 입어봤는데 역시 내가 고른 옷이 가장 멋진 것 같았다. 집에 가는 길에 구입한 옷을 보며 팬스레 웃음이 났다. 집에 가서 패션 쇼 한번 해야겠다~



일요일이다. 밖을 보니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챙겼다.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교회 밴드부를 보려고 일찍 나왔는데 연습하는 날이 아니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맨 앞으로 갔지만 난 그냥 뒤에 앉았다. 예배가 시작돼 기도도 하고 찬송기도 불렀다. 예배가 끝나 밖으로 나왔는데 비가 계속 왔다. 집에 오는 길이 쉽지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신희 언니랑 노래방 가기'를 썼다. 신희 언니는 하고 싶은 일에 '여럿이 노래방 가기'를 썼다. 그래서 나랑 언니랑 다른 언니들과 노래방에 갔다.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탬버린을 흔들며 춤도 같이 추었다. 오랜만에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었다. 나중에 또 놀러 오자고 약속하며 집에 돌아왔다.



송년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예쁜 옷을 입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기분도 좋고 마음이 편했다. 변한 나의 모습이 너무 예뻤고 마음에 들었다. 미용실 언니 머리 예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퍼마를 해야겠다~ㅋ



진정한 배려

그림 | 유성우 (소식지편찬위원회)



▶ 잠깐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

‘우리의 생각을 물어봐주세요’

성촌의집의 윤리경영 이야기

윤리경영이란 법적 책임의 준수는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를 기업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윤리경영이란 회계 상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의 인권보장과 직원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과 필요성을 고민하며 시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운영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성촌의집 윤리경영

하나

▶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진행

- 윤리경영의 개념과 이해

- 윤리경영 실천과 사례

성촌의집 윤리경영

둘

▶ 직원연수를 통하여 윤리경영과 친해지기

- 2015년 12월 한 달 동안의 직원연수 진행

- 조별미션 : 성촌의집에서 윤리경영 실천할 수 있는 사례 찾기

- 직원들의 윤리경영 이야기

성촌의집 윤리경영

셋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선서

- 2016년 1월부터 매월 직원들의 윤리적 사고와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월례회 진행 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선서 후 회의 진행

- 1) 시설의 자산, 물품 등은 내 것처럼 사용하고 절약한다.
- 2)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전문성을 향상한다.
- 3)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웃는 얼굴과 눈높이 대화를 한다.
- 4)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 직원 모두 건강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5) 공식적이고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성촌의집 윤리경영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16년 성촌의집은 윤리경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준비!!

- 윤리경영을 깊이 있게 이해
- 윤리경영과 친해지기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현재의 운영시스템 점검
- 윤리경영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장

- 윤리경영을 통해 직원과 이용자가 행복한 성촌의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을 통해 성촌의집은 윤리경영을 위한 기나긴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인간존중과 사회복지의 윤리적 가치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성촌의집의 역사는 지금도 주~~욱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



✿ 체험홈 가입주 전

체험홈에 정식 입주하기 전 일정기간동안 체험홈을 경험하려고 해요. 가족들과 입주 준비기간 동안 청소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기도 하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체험홈 가입주 기간

부랴부랴 짐을 싸고 체험홈으로 이사를 갑니다. 룰루랄라~^^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니 하루가 후딱 가네요. 피곤한 탓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대로 꿈나라로 향했어요. 이를 날은 첫 날보다 더 정신없었죠. 매번 차려주던 밥을 직접 만들어보니 성촌의집 조리사님의 밥이 그리워졌었죠. 하지만 처음 밥 한 것 치고는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Mission!! Success!!^^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네요~ㅜㅜ



Episode1 대중교통이용 🚍

체험홈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리기 전에 벨을 눌러야 하는데 벨을 누르지 않고, 하차를 하려고 해서 버스기사 아저씨에게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벨은 미리! 미리!

Episode2 분리수거 🌱

분리수거 후 남은 일반 쓰레기를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다 경비아저씨에게 약간의 꾸중을 들었어요ㅜㅜ 지금은 잘하지만 처음에는 애매한 것이 많다는 거ㅋ 모든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Episode3 빽빽이 ✂

-뽁뽁이를 부착할 때 분무기로 유리창에 물을 뿌려야 하는데 분무기가 없어서 수건과 휴지에 물을 묻혀서 유리창에 빽빽이 부착했다는 거..체험홈에서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 임기응변은 필수죠!!!ㅋ

✿ 가입주를 마치고

'시작이 반' 우리는 이제 반 이상을 했습니다ㅋ 앞으로는 정식입주자로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께요. 성촌의집 가족들도 체험홈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립생활을 위해 체험홈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체험홈!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체험홈에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별마을 시네마



| 문화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평소 읽고 싶었던 책
을 구입하러 왔어요~^^

| 2016년 성촌의집 가족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가족과 직원들이 모여
함께 회의를 했어요. 성촌의집은 모든 가족의 개별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요~^^



| 안마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안마
를 받아요. 아이고~ 좋다!! 온몸이
시원하네~^^

| 가족 여러분!! 2016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느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신 사업을 눈 여겨 보시고 선택해주세요~^^



| 설 연휴는 모두 잘 보내셨나요?^^ 성촌의집 가족 모두는 알차고 행복한
설날을 보냈어요~ 재밌는 민속놀이, 맛있는 음식 만들기... 그리고 멋진
경복궁도 다녀왔어요~^^

| 잘 보이세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 DK봉사단 | 2016년 01월 16일(토)

DK봉사단이 방문해 주셔서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 청소를 깨끗이 해주셨습니다. 사방! 사방!하게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평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 2016년 01월 23일(토)

부평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와의 첫 만남!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것을 뚝딱! 뚝딱! 아주 새것처럼 말끔하게 고쳐주셔서 성촌의집 가족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행복한 동행



♥ 육군 제3군수 지원사령부 | 2015년 12월 04일(금)

육군 제3군수 지원사령부에 늘름하고 멋진 군인 오빠들의 도움으로 아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김치를 위해 열심히 땅을 파주셨던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 동그라미봉사단 | 2016년 01월 10일(일)

동그라미봉사단과 함께 실용적이고 어여쁜 꽃불펜을 만들었어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잘쓰겠습니다~^^



키다리아저씨는 지역사회에서
뒤에서 묵묵히 성촌의집에
도움을 주시는 곳을 찾아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13번길 36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701번길 49

♥ 모닝글로리

가족들이 필요한 문구를 구입할 때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편하게 이용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바로 바로 준 비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훈남 사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성촌의집 가족 중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나요?

모든 가족들이 비슷한데, 얼마 전 한 분은 한글을 배우고 싶다며 책을 구입했어요.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고 저도 자극을 받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행복해야 성촌의집 가족들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 건강 꼭챙기고 웃는 모습을 자주 보고 싶어요^^



성촌의집 키다리아저씨(모닝글로리, 휘버스할인마트)입니다.
마음 착한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니 물건 사실 때는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가족들과 직원들이 간식을 사먹기 위해 자주 이용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돈 사용 능력에 큰 도움을 주시고 있어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단돈 몇 백원이라도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고 영수증도 잊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촌의집 가족 중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나요?

물건 구매 때마다 옛날 가격을 얘기하며 물건을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 가격인지조차 모를 정도로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그분을 ‘별에서온 남자’라고 부르곤 했죠. 하하.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직원들의 배려심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가족들의 순수함을 볼 때마다 ‘우리보다 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별마을 이웃사촌-부평지기 봉사단



부평지기 봉사단은...

- 구성원: 총 30명 중 15명이 성촌의집 자원봉사활동
- 활동시간: 분기별 토요일(연 4회)
- 성촌의집과의 인연: 2013년 1월
- 활동내용: 영화관람, 노래방 이용, 공연관람 및 나들이 등

성촌의집 가족들과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준 성촌의집 가족들... 막연한 긴장감이 어느 순간 편안함과 감사함으로 변했지요.

그동안 성촌의집 가족들과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매 번 활동을 계획하기 전 어떤 것을 하면 가족들이 즐거워할까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매 번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촌의집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플로랑스 스코벨 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준 것은 언제나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우리 자신의 삶에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타인에게 준 상처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언덕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되고 그 여�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릅니다. 남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나도 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평지기 봉사단은 성촌의집과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습관~ 행복한 나눔^^

피겨선수 김연아가 필리핀 구호기금으로 10만달러를 기부하고 배우 하지원이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1천권의 책을 기증하였으며 배우 한효주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자막해설 녹음을 하는 등 유명인들의 나눔 소식이 연일화제입니다.

우리들도 유명인들처럼 나눔 실천 어렵지 않아요~



성촌의집 생활공간에는 대형 청소기 1대, 가정용 청소기 1대가 있습니다.. 성촌의집 가족들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청소기도 부족하고 무거워 사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성촌의집 가족에게 성능 좋은 청소기를 후원해주세요. 진공청소기처럼 빠른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물품후원 시 해당되는 가격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이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연말에는 후원물품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똑똑한 재테크 누려보세요~~



쌩쌩한 가정용 청소기 7대!!

후원자 명단 (2015.12.01-2016.02.15)

+ 비지정후원금

개인 : 김경진, 김기철, 김덕진(건강길약국), 김수진, 김용애, 김현보, 박점숙, 신광수(대지양복점), 신진자, 신차남(애니데이동암남부역점), 유계월, 윤창호, 윤채원, 이말선, 이은주, 이준희, 이향란, 정민영, 정현주, 조명규, 조성란

단체 : 교촌에프앤비(주), 인천중앙감리교회, 익산유압, 인천광역시변호사협회, 무드마스, 후원회

CMS : 김민정, 김수조, 김인수, 김현경, 김현수, 김철, 박미정, 박종화, 변문수, 소령수, 손대원, 윤유석, 이구형, 이은주(성촌의집), 이은주(부평우체국), 상정중 우리들봉사단(신미옥), 정금자, 정민호, 정웅택, 정찬식, 조광매, 조근태, 조성숙, 조성순, 조성욱

+ 자정후원금

이용자결연후원금: 김현실, 유정운, 이은주, 임미정

행사장정후원금: 김덕진, 김옥신, 김종택, 김철, 류성만, 이권수, 이호형, 정대상, 정명환, 광성방역, 금산소방, 인천농산물,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 후원물품

개인 : 강인성(부식재료), 김미정(떡), 이미복(생활용품 등), 이향란(USB)

단체 : GM봉사단(김), 동암신용협동조합(빵·우유), 드림안과(종이컵), 부평감리교회(쌀), 부평지기(프로그램 진행), 사랑나눔봉사단(식식 식재료), 시흥현대모터스(차량수리·점검), 카레몽케이크삼산점(케이크), 파리바게뜨간석오거리 역점(빵류), 한국세탁업중앙회인천지부(의복수선), 한국희망집짓기태양봉사단(종식 식재료), 현해어뉴스(헤어디자인)

+ 후원모금함 현황

- 부평우체국(동암우체국), 부평6동우체국, 부평공단우체국, 부평대로우체국, 부평현대아파트우체국, 북인천우체국, 산곡2동우체국, 인천갈산동우체국, 인천부개동우체국, 인천삼산동우체국)

- 24시콩나물국밥, 건강길약국, 라성약국, 벨엘약국, 부성해물탕, 석바위어린이책, 시흥현대모터스, 이천쌀밥설악추어탕, 차우차이, 현해어뉴스

자원봉사자 명단 (2015.12.01-2016.02.15)

개인

강다솔, 강다은, 강민형, 고은서, 김다슬, 김도영, 김명숙, 김민준, 김민지, 김은솔, 김조영, 김지선, 도영준, 박소영, 박창환, 박한결, 배경민, 심미소, 오지원, 윤성찬, 임천기, 전지승, 조혜진, 최혜림, 허예진, 홍석현, 형지원

단체

DK봉사단: 시설 환경개선 지원

- 김란은, 김석현, 김옥태, 김원석, 김정태, 김형남, 김효종, 나봉균, 이나라, 이성현, 이재봉, 이태현, 임진우, 정찬영, 조재만, 최은희

육군3군수지원사령부: 시설 공사 지원

- 이대웅 사령관, 김재하, 김치영, 김환서, 박형규, 백명렬, 백상민, 서현탁, 심형진, 유남인, 이두한, 이홍, 임정혁, 정혁진, 최선웅, 최재섭, 최창윤, 홍채훈, 황현명

부평지기: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등

- 김철 부단장, 박종화 총무, 김경태, 김은솔, 김인수, 심현지, 유병갑, 유혜현, 이수일, 조선영

사랑나눔봉사단: 석식봉사

- 이종서 단장, 김순옥, 김연숙, 모윤숙, 박남숙, 서금자, 송병한, 오경택, 윤하늘, 이다민, 이빛나, 이판기, 전서현, 전성우, 전지현, 정연화, 정정미, 진학일, 차승진, 홍경순

상정중 우리를봉사단: 음식만들기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 신미옥 단장, 강건주, 강민형, 고은서, 김경춘, 김도영, 김영재, 김이수, 김지수, 김형진, 김효연, 김효주, 나승진, 박미영, 박상은, 서인자, 안형진, 오태주, 유나경, 윤수현, 이영웅, 이윤진, 이인숙, 이은서, 이지원, 임정현, 정미자, 정수연, 정태양, 조영순, 최제옥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태양봉사단: 중식봉사

- 이명식 회장, 김미옥, 김영분, 김정은, 김지영, 김지환, 김춘숙, 나영복, 박정순, 백숙림, 소영희, 송선희, 심명임, 오연자, 이영호, 장배원, 황순희

동그라미봉사단: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 오현주 회장, 김숙영, 김오분, 나타현, 문희주, 방준옥, 윤계림, 이재웅, 임충휴, 장경미, 정나나, 최계한

부평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시설을 유지관리

- 남명숙 회장, 강원희, 김나미, 김명수, 김미숙, 김병락, 김병하, 김영미, 김예은, 김종숙, 남형우, 손정희, 심병길, 이동철, 이상기, 이영근, 이인자, 정윤희

자원봉사 신청접수는 전화 · 홈페이지 · 방문 · VMS 등으로 해주세요~

- 처음 오신 봉사자는 '봉사활동신청서'를 꼭!!! 작성해주세요.
-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는 '활동일지'를 작성해야지만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
- VMS(www.vms.or.kr)에 가입하셔야 '활동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시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촌의집 소개와 봉사활동을 알려드립니다.
-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 Painted by 유성우 가족



학습
(수학, 영어 등)



운동
(배드민턴, 탁구 등)



IT교육
(컴퓨터, 인터넷 등)



여가활동
(춤, 노래 등)

행복은 가진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우체국 100115-01-000694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를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 물품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의료용품 (의약품 및 헬체어, 보조기구)

교육기자재 (학습지원을 위한 물품)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후원으로 관계
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
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좌석버스 : 동암북부역 하차 103번, 약사사 입구 하차 11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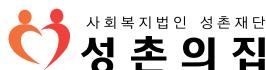
마을버스 : 531, 533, 535-1, 536, 537, 538(남부역하차)

시내버스 : 2, 30, 34, 45번(십정2동주민센터 입구,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남부역 1번출구 하차

인천선 : 간석오거리 9번 출구 /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 하차



별마을이야기 2016년 첫 번째 호 (통권14호)

발행처 | 성촌의집 | 발행인 | 이은주 | 편집인 | 이향란 | 편집위원 | 유성우, 김기철, 손은정, 이소라, 조명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심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